

야외 조형물의 보존에 있어 최근 보존윤리이론에 대한 비판적 주석

김겸
(조각보존.복원)

Ethical Premises for Maintenance of Outdoor Sculpture

Ken Kim
(*Sculpture Conservator*)

Abstract

All the works including sculpture created by modern artists contain a message that represents both the ideas and spirit of an era. We are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transmitting to future generations modern art in as nearly as perfect condition as possible. Thus despite the challenges we face in preserving modern art, we are obliged to conserve it. Especially, outdoor sculpture can be considered as not only works of art themselves, but also a public art. The work of contemporary sculptors often refers to the complexity of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art and the public space, so that the public space tends to include the actual public in the art. The conservator at this point needs to preserve the concept of the public art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culpture, in addition to the materials of the sculpture itself.

Once the sculpture is damaged, it will need restoration. Restoration may be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r it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make an object usable again.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about restoration because, as with preventive treatment, the acceptable degree of intervention varies from one discipline to another. The degree of treatment

including restoration may depend on such variables as available resources, the future use of the object, and the needs of the particular discipline to which it belongs.

When conservators start to treat artworks or during the treatment, they will face many moments where they have to make a choice. Codes of ethic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making choices. Even though ethics have always been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an era or culture, the ethics subject will be much easier to reached an agreement on than one involving aesthetic value.

The aesthetic value will be one of the most prominent factors for defining the damage: even minor loss of parts or discolouration can be considered as fatal damage for artworks. Sometimes, an alteration of the appearance could be intended by the artist himself so that the artist's intention could be important factor for judging the damage of artworks. But, modern hermeneutic theories show that the artist's intention cannot be the only factor for consideration, so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st's intent should be an interdisciplinary task regarding distinctiv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들어가는 말

보존과학의 분야는 크게 유물의 물질적 특성과 노화의 과정을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것과 손상된 유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리, 복원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며 이에 따라 크게 교육과정이나 활동분야가 이분화 된다. 외국의 보존과학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에 보존과학 conservation science 전공이 있고, 수리, 복원 학교 conservation & restoration는 미술대학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수업은 서로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분화 및 연계성은 분석실과 처리실로 나뉘는 일반적인 보존연구소의 형태나 보존과학 학회, 연구지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리, 복원교육과정이나 전문가가 비교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매장유물을 비롯한 역사적 가치가 우위인 유물의 연구나 보존처

리는 꾸준히 행하여 오고있는 반면 미적가치가 우위인 미술품의 수리, 복원은 비교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야외조형물보존실태

야외 조형물 보존을 예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국가 중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야외 청동 조형물의 세월에 따른 푸른색 파티나(Patina¹⁾)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놓아둔 반면, 영국 런던 중심가의 모든 야외 청동 조형물은 모두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밤색으로 코팅까지 말끔하게 관리되고 있다. 런던의 이러한 현상은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영국 내 조각보존가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미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²⁾

일본의 미술작품 보존·복원 분야에서 회화는 이미 전문 교육과정 등이 뿌리 내린 만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조각 부분은 1996년 야외조각조사보존연구회가 발족되어 상태조사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보존처리전문의 부족으로 최근까지 주물소나 미술공방에서 수리하는 예가 많았다.

미국은 야외 조형물에 대하여 소위 '조각구제운동'³⁾을 조각보존협회와 스미소니언 등 박물관이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깨끗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취지 하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적인 보존·복원작업 이 외에 도시환경에 속에서의 오염물 제거가 대부분의 인력과 시간을 차지하는 일이므로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과정이나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청동조형물의 경우새롭게 파티네이션이 된 경우를 비교적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형물의 표면이 많이 손상되었을 경우 블라스팅 기구로 완전히 박피하고 새로운 파티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인데, 비슷한 손상의 경우 유럽에서는 예전 표면을 남겨두고

1) 여기서 파티나 Patina는 금속표면에 미적인 이유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힌 부식층을 말하며 파티나를 입히는 행위를 파티네이션 Patination 이라고 한다.

2) Jackie Heuman, Perspectives on the Repatination of Outdoor Bronze Sculpture, Lindley, Phillip (edit), *Sculpture Conservation Preservation or Interference?*, Solar Press, 1997, pp.121-128.

3) SOS! (Save Outdoor Sculpture!)의 활동사항은 <http://www.sculpturecenter.org/co.htm>
<http://www.heritagepreservation.org/PROGRAMS/SOS/sosmain.htm>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흉한 부분만 색을 맞추어 준 다던지 안료를 첨가한 왁스로 덮어 준 다던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유럽의 가치관에선 전체적인 재 파티 네이션은 본디 퇴색해 가는 작품의 본성과 작품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할 수 있다. 이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라기 보다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된 선택의 문제 인 것이다.

최근 보존윤리경향

영국 보존과학회에서 1996년 선택한 보존, 복원가 규약의 기본요지⁴⁾는 유물 에 대한 최소한의 처리와 예방보존의 중요성, 사용되는 재료의 가역성⁵⁾ 등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역성은 이상적인 이론 일 뿐이며 손상 damage 이란 개념이나 유물이 가진 가치의 보편성, 객관성, 과학적 보존 등 고전적인 보존과학 개념들이 비판 받고 해체되고 있다.⁶⁾ 이는 중심이 해체되는 포스트모던 적인 사고의 연장과 이제까지 보존전문가와 큐레이터, 제정 후원자 등의 특정 소수에 의해 규정되고 결정되어 온 특정 분야 속에 관심 있는 일반대중의 참여가 커다란 몫을 하게 된 것 등이 변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복원Restoration에 있어서 대상의 가장 적절한 상태는 객관적인, 혹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⁷⁾ 결국 보존, 복원 행위의 목적은 작품, 유물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소유자, 연구자, 감상자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연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자체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존·복원 작업의 판단에 있

4) UKIC *UKIC Code of Ethics and Rules of Practice*. London, United Kingdom Institute for Conservation 1996

5) 가역성 Reversibility 이란 보존복원 처리방법은 처리 이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 제거 시 유물에 해를 입히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ACI code of Ethic

6) Salvador Muos Vias, *Contemporary Theory of Conservation*, *Reviews in Conservation* Number 3, IIC, 2002, pp.25-34

7) 고전 이론에서 보존, 복원가의 역할은 대상물의 진리를 되찾아주고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렘브란트의 한 작품이 19세기 무명작가에 의해 덧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후에 덧붙여진 물감을 제거하는 것이 고전 이론에 따르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사랑받고 감상되어 오던 렘브란트의 작품은 사실 두 작가에 의해 완성된 결과물이다. 덧칠 된 회화층 만을 선별하여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리니와 제거작업에 돌입하더라도 어느 선에선가 멈추어야 하는데, 그 판단 역시 대단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오리지널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별 자체가 자의적이므로 문화적, 정치적, 인종이나 성별 등 다양한 판단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Ibid. p.28.

어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는다. 보존·복원이란 결국 인간에 관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스탠니포스 Staniforth는 IIC 간행물을 통해 '협의하는 보존 Negotiative Conservation'⁸⁾이라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 해석의 문제

최근 문헌들은 조형작품의 보존, 복원이라는 행위에 앞서 해석하고 판단해 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가의 의도 Artistic intention' 해석을 기본 전제로 소개하고 있다.⁹⁾ 이 전제의 인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예술의 천성은 의지와 목적이라는 근원의 가정 하에 우리에게 명료성을 띠게 되는데, 예술작품은 그 자체 목적성을 띤 유기물이며 예술가의 의도는 이러한 예술의 본성에 비추어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여 작가의 의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였다. 이후 파놉스키 Panofsky 는 의도 intention 라는 용어를 시대구분, 미적양식, 장르 등의 집합의식 내에서 사용하였으며 박산달 Baxandall은 이를 세분화하여 개별 작가의 작품을 각 시대양식의 목적과 결부시켰다. 이러한 인문학적 이론들과 함께 19세기 이후 발전 되어 온 과학적인 분석 방법들을 통해 작가의 오리지널 재료와 후대에 변화되어 온 것 혹은 작가 자신에 의해 변경된 작업 과정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결국 작가의 처음 의도가 작품 현존의 이유이자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보존윤리 이론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 역시 다른 보존윤리의 고전적인 이론들과 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작가가 생존해 있더라도 그의 의견에 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조형작품을 위한 보존윤리의 전제에서 '작가의 의도'에 부여된 절대적 위치를 해체하고 실효성 있는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 해석 자체의 문제점과 조형작품이 작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작품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대상임을 밝혀야 한다.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정의가 어려운 것은 작품자체의 본성과 그 안에서 작

8) Staniforth, S., Conservation: Significance,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Bulletin*2000 6, IIC, 2000. pp.3~8.

9) Dykstra, S.W (2001), *The Artist's Intentions and the Intentional Fallacy in Fine Arts Conservation*, *JIA*C196, Volume35, Number3, Article3 (pp.197-218).
<http://aic.Staford.edu/jaic/articles/jaic35-03-003/html> [Accessed 19.03.03] 에 관련된 문헌들의 목록이 작 정리되어 있다

가의 역할에 관한 불확실한 개념 정의들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해석학은 작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가다머 Gadamer와 리코르 Ricoeur는 작가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예술의 해석과 현상에 관한 전시대의 명제를 발전시켰는데, 미술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적인 자율체가 되는 것을 리코르는 '소격화distanciation' 현상을 통해 설명한다. 작품의 소격화와 자율성의 개념은 작품 안에서의 작가의 존재, 권위를 미디어, 미술이론의 문맥, 감상자의 감상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한다. 이러한 개념들로부터 결국 작가의 의도만이 작품의 보존, 복원의 원칙이 될 수 없음을 유추하게 된다. 또한 작가의 의도가 물질에 의해 표현되어졌을 때 작품은 결국은 물질의 자연적 특성에 종속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질된 작품을 두고 처음의 의도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조형예술작품의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작가의 의도와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 사회 안에서의 해석 가능성 등이 모두 검토된 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맺음말

야외 조형물의 보존, 복원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이나 약품, 기자재 등은 여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바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의 기술과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 할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보존윤리의 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존활동 보다 유물artifact이 가진 의미를 먼저 이해하라'¹⁰⁾는 화두는 흔히 보존 과학이라면 수리 전 사진과 수리 후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씀히 고쳐졌구나 하며 감탄하는 기술이 아닌 유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나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필요하다면 손상된 그대로 두거나 더 낡게 보이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외 조형물들을 어떠한 색조로 조절하여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손상으로 보고 어디까지 수리, 복원해 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의 현실과 문화를 반영하며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 Elizabeth Pye (2001), *Caring for the Past Issues in Conservation for Archaeology and Museums*, Stylus Pub. p.58.

참고문헌

Ashley-Smith, J. (1995), *Definition of Damage*,
<http://palimpsest.stanford.edu/byauth/ashley-smith/damage.html>, [Assessed
04.05.28]

Baxandall, M. (1985) *Patterns of intention: On the historical explanation of pictur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aple, C., (2000) *Conservation Skills - Judgement, Method and Decision Mak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Ed.) Corzo, M.A., (1999) *Mortality Immortality? - The Legacy of 20th Century Art*,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Dykstra, S.W (2001), *The Artist's Intentions and the Intentional Fallacy in Fine Arts Conservation*, JIAC196, Volume35, Number3, Article3 (pp.197-218).

<http://aic.stanford.edu/jaic/articles/jaic35-03-003/html>[Accessed 03.03.19]

Elizabeth Pye (2001), *Caring for the Past Issues in Conservation for Archaeology and Museums*, Stylus Pub.

Gadamer, H.-G.(1975) The question of truth as it emerges in the experience of art. *Truth and method*, ed. and trans. W.Glen-Doppel. London: Sheed and Ward. pp.1~45.

(Ed.) Heuman, J.,(1995) *From Marble to Chocolate: the conservation of modern sculpture*, preprints of the Tate Gallery conference, Sep.1995, London, Archetype Publications.

Jackie Heuman, (1997) Perspectives on the Repatination of Outdoor Bronze

Sculpture, Lindley. Phillip (edit), *Sculpture Conservation Preservation or Interference?*, Solar Press

Panofsky, E. (1991) *Perspective as symbolic form*, trans. C. S. Wood. New York: Zone Books.

Ricoeur, P.(1981) The hermeneutical function of distancing. *Hermeneutics and the social sciences*, ed. and trans. J. B.Thomp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1~44.

Salvador Muos Vias, (2002) Contemporary Theory of Conservation, *Reviews in Conservation* Number 3, IIC

Staniforth, S.,(2000) Conservation: Significance,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Bulletin 20006*, IIC

SOS!(SaveOutdoorSculpture!), <http://www.sculpturecenter.org/co.htm>
<http://www.heritagepreservation.org/PROGRAMS/SOS/sosmain.htm>
[Accessed 04.07.02]

UKIC (1996) *UKIC Code of Ethics and Rules of Practice*, London, United Kingdom Institute for Conservation